



커피 한잔으로 실천하는 따뜻한 나눔 경영

MDS테크놀로지 사회공헌 활동

MDS 테크놀로지(대표 김현철)에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향이 먼저 방문객을 반긴다. MDS테크놀로지에서는 그 따뜻한 커피향 만큼이나 훈훈한 나눔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MDS테크놀로지는 휴대폰, 자동차, 정보가전, 로봇 등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토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의 임베디드 SW전문업체로, 2004년 구로디지털단지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테라(Terra)'라는 사내 카페를 오픈하였다. 직원들과 방문 고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에서는 여느 카페처럼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고급 음료를 판매한다. 한 잔당 500원에 판매하여 모은 수익금 전액은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한 달 평균 판매금은 200만원 정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도 매칭 펀드로 기부하여 지금까지 북한 용천동포 돕기, 결연 아동 후원, 독거노인 돕기 등에 사용해왔다. 2004년 4월 카페를 오픈한 후 지금까지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사용된 커피 판매액만 2천 5백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회사에서 기부한 매칭 펀드 금액까지 합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MDS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 활동은 전혀 요란하거나 거창하지 않다. 매일 전 직원이 마시는 커피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문화는 MDS테크놀로지의 기업문화 속에 잔잔하면서도 깊숙히 녹아있다. 또한 MDS테크놀로지는 작년과 올해 추석 명절에도 구로 관내에 거

주하는 독거노인 20여 분과 함께 단체 쇼핑을 하면서 봉사활동까지 겸하는 '사랑의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단체쇼핑을 하며 직접 명절 선물을 고르는 기업문화와 사회공헌 활동이 결합된 것이다. 독거노인들의 장보기를 돕기 위해 MDS테크놀로지는 직원 중 30명의 쇼핑 도우미를 선발하여 독거노인들의 쇼핑을 돕고 택시로 택으로 모셔다 드리는 편의를 제공한다. 물론 독거노인들의 쇼핑 금액 역시 사내 카페의 커피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외에도 MDS테크놀로지는 청소년 진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내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보수와 청소를 돕고 복지시설의 실업계 고교생들을 회사에 초청하여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원들은 인생의 선배로서 진로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이들과 미래'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IT진로 박람회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여 청소년들의 진로를 상담해 주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김현철 대표는 "우리보다 어려운 소외 계층을 돌아보고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커피 한 잔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한다.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구로 결손 가정 아동 후원

▲전사원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내 카페 '테라' 전경